

네이션(Nation)의 서사학과 낭만성

-이태준의 『왕자 호동』을 중심으로

진영복*

1. 들어가는 말
2. 네이션 서사학의 타자 표상 방식
 - 2-1. 낭만적 아이러니와 네이션 의식
 - 2-2. 원시적 감정의 낭만적 성격
3. 네이션 서사학의 주체 구성 방식
 - 3-1. 가부장제와 네이션 의식
 - 3-2. 낭만적 사랑과 사적 영역의 부정
4.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는 이태준의 역사소설인 『왕자 호동』에 나타난 네이션 서사학과 대중미학을 주체 구성 방식과 타자 표상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소설이 제국주의의 시선과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의 시선을 교묘하게 맞붙여 낭만적 아이러니와 낭만적 사랑이라는 대중미학적 원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소설은 원시적 시원을 낭만적으로 동경하고 낭만적 사랑을 네이션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시키면서도 부정하는 아이러니적 방식을 이용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한(韓)민족 의식과 일체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순응하는 상상적 일체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즉 제국주의의 시선에서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고, 차선의 악을 선택한다는 원리에 의해 저항하면서 순응하는 식민지적 삶의 이중적 양태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민족/제국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내이션 의식을 통해 상상적 일체감을 제공해 주며 내셔널리즘으로 타협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내이션, 내셔널리즘, 대중미학, 주체, 타자, 낭만적 아이러니, 낭만적 사랑, 상상적 일체감, 저항, 순응.

1. 들어가는 말

흔히 우리 문학의 암흑기라 말해지는 1940년대 전반기 즉, 1940년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기에 이태준은 비교적 많은 작품을 발표한다. 그는 『사상의 월야』(『매일신보』1941. 3. 4. - 7.5.), 『별은 창마다』(『신시대』1942. 1. - 1943. 6.), 『행복에의 흰 손들』(『조광』1942. 1. - 1943. 6.)을 발표한데 이어 『왕자 호동』을 1942년 12월 22일부터 1943년 6월 16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하였고, 작품집 『돌다리』(박문서관)도 1943년 12월 출간한다. 또한 이광수에 이어 제2회 조선예술상을 1942년에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 무렵은 전시총동원체제로 돌입한 시기로 용지를 절약하기 위해 신문 잡지 등이 통폐합된 탓에 발표 지면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작가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1941년 11월 『국민문학』창간호의 좌담회에서 '작가의 생활과 발표기관'이라는 주제가 토의의 한 부문이 되기도 한다. 이 좌담회에서 작가의 생활고를 타개할 묘안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문학상 제도를 장려하자는 등의 논의가 오고갈 정도로 작가들

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이었다.¹⁾ 이런 면에서 보자면 발표 지면을 폭넓게 가지고 있었던 이태준은 행복한 작가에 속한다. 게다가 그는 일제 말기 그의 저작을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발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해방 후에 열린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좌담회에서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시는 사람을 은근히 가장 원망했”²⁾이라며 조선어 말살정책에 협력해서 일본말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은 민족적으로 중대한 반동이었다고 당당하게 다른 작가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게 한 점에서도 행복한 작가라 할 수 있다.³⁾ 이태준은 이 좌담회에서 해방 전에 “우리 민족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는 조선어를 한 마디라도 더 써서 퍼뜨린 편이 나왔다고”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 즉, 일본어로 글을 쓴 것은 조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일로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협력의 일이었다고 이에 비해 자신은 조선어를 살리기 위해 글을 썼는데 이는 민족적 저항의 한 형식이었다고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 시기 잡지나 신문의 소설란에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된

1) 『國民文學』 창간호(일본어 판), 인문사, 1941. 11. 89쪽.

2) 임화·이태준 외, 「문학자의 자기비판」, 『인민예술』 2호, 1946. 10. (송기환, 김외곤 편, 『해방공간의 비평문학』2, 태학사, 1991. 169쪽.) 이 좌담회는 1945년 설달 그믐께에 열렸지만 사정상 출판이 늦어져 1946년에 출간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3) 같은 좌담회에서 김사량은 자신의 일본어 소설과 관련하여 “조선의 진상, 우리의 생활 감정 이런 것을 리얼하게 던지고 호소한다는 높은 기개와 정열 밑에서 붓을 들었던 것”이지만, “지금 보아서 반성해 볼 때 그 내용은 여하간에 역시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임화·이태준 외, 위의 글, 166쪽)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사량의 일본어 창작은 친일이라는 말로 포괄되지 않는 의미, 즉, 중심부의 언어, 기득권을 가진 식민지 본국의 언어를 폐기하고 그 언어를 각 주변부 국가나 민족의 모어의 영향력 안에 유치시키려는 포스트 콜로니얼적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파악하는 윤대석의 논의는 언어와 민족성의 관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다. 윤대석, 「1940년을 전후한 조선의 언어 상황과 문학자」,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호, 2003. 4, 167쪽.

4) 임화·이태준 외, 앞의 글, 170쪽.

작품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일본어를 모르는 다수의 식민지 민중에 대한 총동원체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국주의의 암묵적인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이태준의 말처럼 '조선어'를 고집한 것만으로 저항의 형식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태준은 사상에까지 일제에 협력한 사람과 그냥 용어만을 일어로 한 사람과 구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손쉬운 구분법은 제국주의의 잔재를 외면적으로는 청산할 수는 있어도, 저항과 순응이 혼종되고 착종되는 다양한 양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내면화된 제국주의의 시선을 극복하는 탈식민주의적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⁵⁾

저항의 논리와 순응의 논리가 식민지 시대 문학 속에서 어떤 양태와 방법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문학자로서 식민지 시대를 산다는 것이 지배 체제 이데올로기에 대해 자신을 대응쌍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항상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검열을 내면화한다는 사실과 관련

5) 이 좌담회에서 한효와 임화가 한 발언의 함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효는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조선 사람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므로 준열한 자기비판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임화는 태평양 전쟁에서 만일 일본이 지지 않고 승리를 한다면? 라는 전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가 하고 묻는 것이 자기비판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내 마음 속 어느 한 귀퉁이에 강렬히 숨어 있는 생명욕이 승리한 일본과 타협하고 싶지는 않았던가? 하며 묻는 자기비판과 양심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기비판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고 특히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명목으로 내세운 이념상 즉, 동양을 식민지화한 서구로부터 해방, 자본주의가 초래한 물신숭배의 극복, 개인주의화에 의한 소외와 가치의 타락의 극복 등등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조하거나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와 『행복에의 흰 손들』을 태평양전쟁의 이념태라 할 '신체제', '근대초극론'과 결부지어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참고, 「민족적 주체 구성과 글쓰기양상」, 『어문론총』 제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6, 349-376 쪽.

된다. 문학자나 지식인이 좀더 나은 공동사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이에 열광한다면 이상주의적 확신범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배적 이데올로기 중에서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어떤 부문에만 동의할 경우 부분적으로 순응하게 된다. 이때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강력한 동인(動因)은 대세와 공통되는 안전지대에서 떨어져 고립된 편향자로서 살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다는 내면의 공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제에 대한 침묵의 동의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침묵의 동의 혹은 부분적 순응은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보다 적은 악을 선택한다는 사고와 연관된다. 따라서 식민지에 살고 있는 국내망명자라 할지라도 심정적으로는 체제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저항자이면서 동시에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거부하는 체제를 바라는 지원자가 된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의 텍스트를 읽는 작업은 이러한 저항과 순응의 이분법을 넘어서 '자신이 거부하는 체제를 바라는 지원자'가 되는 과정 즉,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교감하고 공감하는 부문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통해 '자기'를 다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창출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를 외부가 아닌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태준의 『왕자 호동』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 소설은 "한민족의 재발견과 민족성 회복이라는 심정적 민족주의와 충의"6)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족주의적 시각에 충실했고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후 이태준이 붓을 꺾고 낙향했다는 논거로 이 작품이 제시된다. 반면에 정종현의 경우, 이 작품에서 '서자'라고 설정된 호동은 이등국민으로서의 조선

6)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 호동』, 깊은샘, 1999, 299쪽.

인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본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에 배치한 호동의 비장한 죽음은 국가주의를 매개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요구하는 국민상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사(私)를 버린 국민이 일제에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⁷⁾ 이에 대해 방민호는 서자의 위치를 이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천황제 파시즘과 위계화되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허무주의와 조선주의의 단층이 나타나므로 어느 한 방향으로 요약되지 않는 점이 오히려 더욱 문제적이라고 논한다.⁸⁾

본고에서 네이션(nation)을 민족이나 국민국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이유는 식민지 시대의 네이션의 원리가 제국과 민족의 구성 원리로 동일하게 작동하여 제국과 민족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국을 단일한 문화로 규정하지 않고 다인종과 다문화를 인정하면서 민족을 제국의 지방 문화로 취급하여 제국의 중심으로 수렴할 경우 민족적 특수성은 제국의 보편성으로 흡수되고 만다. 이렇게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제국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저항의 의미를 띠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족적 색채를 띠는 것과 제국에 대한 순응과의 함수 관계는 더욱 복잡한 사유과정을 요한다.

또한 『왕자 호동』에 나타난 네이션 의식이 대중미학의 방법적 원리와 결합하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미학은 등장인물의 일상에 친근감을 부여하며 등장인물과 독자의 일상 사이에 상상적 일체감을 제공해 주며,⁹⁾ 동시에 지배이데올로기의 지배와 저항이라

7) 정종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8, 105쪽.

8) 방민호,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보』 제14집, 상허학회, 2005. 2, 245쪽.

9) 나병철, 「서사와 대중성」, 『대중서사연구』제 9호, 대중서사학회, 2003. 6, 176쪽.

는 균열점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 내지 사회적 통념의 순응으로 타협적 균형을 모색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¹⁰⁾ 『왕자 호동』에서는 이러한 대중미학적 특성이 낭만성과 결합되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고는 『왕자 호동』에서 국가주의의 원리와 낭만성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저항과 순응이 착종된 네이션 서사학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항과 순응이라는 식민지 의식의 중층성과 복합성이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읽고자 하는 저항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저항의 요소가 당대에 어떻게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구성요소에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거부하는 체제의 지원자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2. 네이션 서사학의 타자 표상 방식

2-1. 낭만적 아이러니와 네이션 의식

이태준의 『왕자 호동』에서 전반부를 지배하는 서사는 전쟁이다. 부여와 옥저, 예맥과 낙랑 등으로 둘러싸인 고구려는 복진을 해서 부여를 굴복시키고 남진하여 낙랑을 정벌하여 영토의 확장을 기획한다. 이 소설은 로맨스가 주가 되었던 호동 왕자 설화와 달리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이야기를 확대하고 후반부로 가면서 왕자 호동의 사랑 이야기를 가미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전반부에 보여주는 영토확장의 서사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으로 전개되는

10) 김현주,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2005, 26쪽.

특징을 지닌다. 이를 통해 끔찍하고 잔인한 영토 확장의 서사를 마치 강렬한 전쟁 장면의 영상을 흑백으로 처리하여 사실성을 탈색시킨 것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대무신왕과 함께 부여 정벌에 나선 괴유의 전투장면은 낭만성과 네이션 의식의 결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괴유는 이를 악물고 뛰는 통나무를 치거나 했다. 말의 목이나 사람의 허리는 통나무보다는 칼받음이 연했다. 칼은 한 번 후림에 다섯 간 돌레는 그어졌다.

다섯 간 안통으로 달려드는 것은 말대가리든, 사람허리든 무척 나가듯 했다.¹¹⁾

칼을 통해 살생을 하는 장면에서 칼에 전해져 오는 감축을 이처럼 '무칭' 썰 듯 연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고구려 장수 괴유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쟁의 끔찍한 살상 장면을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환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느낌을 지우고 있다. 또한 '벤다기보다 박살을 내는 소리'가 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원한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정의로운 고구려'의 행위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시 민중이 한(漢)나라로 지칭되는 '부당한 중국인'에게 당해왔던 원한을 푸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쟁과 살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족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의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가혹한 외세의 통치자에게 시달리는 민중을 해방하고 항구적인 민족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함으로써, 네이션 의식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11) 이태준, 『왕자 호동』, 깊은샘, 1999. 56쪽.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판본에 의거하며 인용문에 쪽수만 적도록 한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민족적 존재와 국가 고구려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영토확장의 서사가 지닌 침략적인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고구려의 덕치주의가 전면에서 표방되기도 한다.

목적인 대소왕의 목을 벤 이상 남은 무리들에겐 칼 대신 이로부터는 덕을 베풀 뿐, 달아나는 그들의 뒤를 굳이 창검으로 쫓을 이유는 없었다. 군사들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이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 신왕은 부여의 서울을 점령하기는커녕 그들에게서 쌀 한 톨 가축 한 마리 빼앗지 않은 채 대소왕의 목만 말꼬리에 달고 회정에 오르고 말았다. (58쪽)

이렇듯 덕치주의는 고구려라는 민족적 존재의 형성과 존립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목적론에 의해 도입된 통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정의와 덕치주의에서 찾음으로써 진정으로 충만한 시원의 시간과 역사로서의 고구려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주기 위해 주관적으로 삽입된 서사이다. 과거 즉 고구려 시대를 철저하게 순수성 그 자체로 표상하고 이를 근원적 시원으로 동경하는 것은 '지금-여기'의 민족적 존재에 대한 승인과 확인을 확보하려는 심정적 낭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원(始原)에 대한 동경과 그 순수한 시간을 기억의 시간과 공간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원시 즉, 언어와 사물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모든 것이 미분화된 시간과 공간을 동경하는 것과 같다. 이는 '지금-여기'의 시간과 공간을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자연적/원시적/민족적/감정적인 것을 동경하는 것은 그 대립항인 인위적/문명적/이성적이라는 근대적 원리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로 향한 회귀는 그 이면에 과거로의 회귀를 방해하는 근대적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또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공 낙원의 정

신에 관계되는데, 왜냐하면 이는 상상력이 부여한 시간과 공간을 동경하는 것, 즉 상상력의 이성으로 재창조해낸 상상된 가상에 대한 동경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주는 낭만적 정신은 미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데카당스의 정신과 상통한다.

그러나 낭만적 정신은 미의 영원성의 강조로 이어지고, 시원과 영원성에 대한 동경은 자칫 잘못하면 '무한의 자기 부정'을 통해 죽음을 절대화하는 계기로 이어져, 미의 영원성을 이용하여 죽음의 현실을 변용시키는 일종의 파괴 활동에 종사하게 한다. 이 지점에서 시원의 사상과 죽음의 미학이 함께 맞닿을 수 있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의 순간은 그 죽음에 의해 표현되고, 개인의 생의 가치는 죽음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미학과 연결되는 것이다.¹²⁾ 가치와 창조를 인간 정신과 삶에서 제일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만큼 그것을 약화시키고 훼손하려는 타락한 양상과 세속에 대해서는 그만큼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선택하고 취한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은 다른 타자와 가치를 무(無)화할 수 있는 이율배반을 내포한다.

이처럼 전쟁의 끔찍한 분위기를 자기희생과 연민의 서정적 분위기와 연결시키는 주요한 방법은 낭만적 아이러니(Ironie)이다. 상상력의 확대에 의한 무한 추구는 예술가가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이라고 상념한 것과 작품에서 실제로 도달한 이상과의 대립의식, 내적 감정과 실제 현실과의 대립 의식과 그 격차에 의해 낭만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¹³⁾ 이때 보여주는 낭만성은 등장인물이 스스로 선택한 가치를 위해 죽음마저도 불사

12) 아이러니와 일본낭만파의 관계에 관해서는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

일본: 未來社, 1995(초판: 1960년), 45-65쪽 참조.

13)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출판부, 2000. 434쪽.

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개체를 초월한 영원성과 무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절대화하여 운명과 숙명의 논리를 지극히 정당한 논리로 수용하게 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호동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 죽음을 묘사하는 방식도 이러한 낭만성에 기인한다. 왕비는 서자인 호동이 자신에게 음행을 하려는 것 같으며 모함하지만, 호동은 이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는다. 호동은 '장쾌한 죽음'을 원한다며 "가을바람에 살진 말을 네 곱을 띄어 달이 지기 전에 낙랑공주 무덤에 다다랐다. 호동은 웃옷을 벗어 던지었다. 칼을 뽑아 가슴에 박았다. 그리고 번개처럼 달리는 말 위에서 공주의 무덤을 향해 내려 뛰"(295쪽)어 자결한다. 이 대목은 호동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단호하게 버리는 장면이다. 호동의 죽음은 외적 권위에 대한 절대 순응의 태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한의 자기 부정을 통해 자기 이상을 긍정하려는 낭만적 아이러니의 모습 그 자체이다. 이러한 『왕자 호동』에 나타난 호동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삼국사기』에서 호동이 작은 일을 삼가는 데 집착하여 대의에 어두웠다는 김부식의 비판적 평가와는 대조적이다.¹⁴⁾ 고려인 김부식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여 논평하는 것이지만, 근대인 이태준은 '장쾌한 죽음'이라는 미학적 비극을 도입하여 호동 왕자의 죽음을 예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태준은 호동의 죽음을 근대적 의미의 낭만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호동을

14) 김부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편에서 "내가 만약 변명을 하면 이것은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왕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칼에 얹어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론(史論)'에서 왕이 참소하는 말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어질지 못함을 물론, 아들 역시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도록 했으니 죄가 있다고 논평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한국학: 『삼국사기』 제14권 고구려본기 제2권, 대무신왕편, <http://www.koreandb.net/Sam/bon/samkuk>

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호동은 자신의 죽음이 모순적이고 부조리하다고 할지라도 더욱 큰 대의 즉, 영원한 국가/민족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영원성의 미학이 무한한 자기부정으로 쉽게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호동의 죽음은 저항의 한 면모이다.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심각하고 장엄한 고백으로 치환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네이션의 강력한 힘에 저항하는 형식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호동이 비극적 패배와 그에 따른 죽음을 선택한 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네이션을 위한 목적론에 맞춘 순응의 행위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죽음의 미학과 영원성의 가치를 선택한 미적인 것이고 이를 통한 저항적 행위인 셈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으로 순응하면서도 저항하는 아이러니는 전도된 저항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러니는 『왕자 호동』에서는 불완전하게 표현되기에 현실적 힘으로 전화되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네이션을 위한 절대적 순교가 현실적 힘으로 나타남으로써 호동의 행위는 내셔널리즘이라는 전체주의로 수렴되어 버리고 만다. 낙랑공주 역시 아버지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신비화된다. 고구려로 운구 되는 낙랑공주의 장송행렬이 '오직 무서운 꿈속처럼 묵묵한 위엄의 행렬'(265면)이라고 묘사된다. 이 대목에서 소설은 낙랑공주를 삶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내면화한 낭만적 근대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죽음을 몽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전쟁, 죽음과 영원성의 미학을 결합시키는 방법은 전쟁의 현재를 현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심정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극복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명료한 이해에 이르게 하고 대상이나 자기에게 추상적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 가령 임학수의 시, "산

넘어 또 산 넘어/ 疊疊한 준령넘어// 푸르른汾水 가에/ 조그마한 들 끝에// 때 한창 열켜 핀/ 복사 배꽃// 戰友야 잠간 쉬자 / 나는 그리워 /복사꽃이"¹⁵⁾ 라는 언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 수행이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로 감각화되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전쟁 행위를 머나먼 인간의 시원과 이상에 대한 동경으로 환치시켜 탐미적 미의식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은 이광수의 「죽장기」에서 “우리 군사가 적군의 시체를 향하여서 합장하고 나무아무타불을 부른다는 것이 차별 세계에서 무차별 세계에 올라간 경지야”¹⁶⁾라고 언표 될 때, 모든 상대적 가치와 현실적 문맥은 합리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채 현재를 부정하고 부재케 하여 절대와 영원성에 대한 무한한 복종과 자기 부정만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이처럼 절대에 대한 무한한 동경이 유기적 전체성과 결합할 경우 가장 강력한 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가 되며, 네이션을 향한 죽음에 형이상학적 의미와 영원성의 미학을 부여하게 된다. 전체주의를 미학화하고 문화화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왕자 호동』에 적용되는 셈이다. 비록 호동의 죽음이 낭만적 비극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즉 대의(네이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대의를 위해 작은 악(개인의 원한)은 감추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희생(호동의 죽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순응이며 정의롭지 못한 주인을 배반하지 못하는 노예의 사상에 다름 아니다.

2-2. 원시적 감정¹⁷⁾의 낭만적 성격

15) 임학수, 「汾河의 봄」, 『전선시집』, 인문사, 1939. 42-43쪽.

16) 이광수, 『이광수전집』 제6권, 삼중당, 1962. 515쪽.

17) 문명화되기 이전의 감정으로 이성애 의해 본능이 억압되고 통제되기 이전의 자연스럽다고 상상되는 감정 형태로, 자연과 하나 되어 나타난 풍토의 의미까지 내포한다.

『왕자 호동』에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고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표상하려는 태도야말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상과 연결된다. 이때 자연이나 풍경은 역사적 행위의 무대가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역사 자체로 비약한다. 자연이나 풍경의 찬미는 상실의 시대에 다름 아닌 근대를 극복하여 내재적으로 차이와 갈등 일체가 지양된 시대를 기억해내고 그러한 과거의 시대나 공간을 동경하는 낭만적 탐닉에서 비롯된다.

『왕자 호동』에서는 원시 감정을 통해 산하의 자연과 풍토를 일체화시키고 있다.¹⁸⁾ 따라서 역사의 정신이 풍토나 자연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고구려의 사냥을 짐승의 고기나 가죽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부여의 도(道)(13쪽)의 실천이라 칭한다. 요컨대 자연과 풍속이 보편적인 민족적 정신이자 역사로 무매개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사냥은 『왕자 호동』에서는 눈의 정기로 짐승을 제압하며, 몸의 단련으로 짐승이 뛰는 속도로 말을 달려 활을 쏘아야지 비겁하게 뒤에서 쏘아서는 아니 되며, 정확도의 수련으로 부정확하게 아무데나 쏘아

18) 자연을 심미화하여 절대화하는 감성은 이태준의 농본주의적 시각과 연관된다. 이태준의 단편소설 『돌다리』에서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년에 고작 삼천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등등의 아들의 의견에 대해 아버지는 땅을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의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세태에 대해 비난한다. (이태준, 『돌다리』, 깊은샘, 1995. 237-238쪽 참조) 이를테면 땅이나 농업을 이윤 추구로 바라보는 시점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시의 일본 파시즘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이윤 추구에 따른 가치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서구적인 근대의 초극을 모토로 삼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태준이 보여준 중농주의적 시각은 일본 파시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협조하는 코드였음은 자명하다.

서는 안 되는 정신의 수련과정인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의 사냥 풍속은 민족의 산하와 자연에서 행해지는 정신 수련의 과정이며 결과인 것이다. “첫 살에 맞추지 못했으면 짐승이 부끄러워선들 어따 대고 난사(亂射)를 하는가?”(153쪽)라며 호동이 낙랑 태수에게 일갈하는 장면은 자연과 정신을 일체화한 고구려의 높은 기상과 정신을 드러내고, 고구려가 중국의 본류인 한(漢)나라와 다른 민족적 정신을 소유한 것으로 차별화기 위한 서사 전략인 것이다. “선뿐 속구는 사슴의 앞다리 밑으로 화살을 히끗 빠져나가는 듯하였는데 사슴은 비단 같은 단풍밭으로 떼굴떼굴 내려 굴렀다”(14쪽)라는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시적 감정은 자연의 정령과 인간의 정신을 소통시키는 매개이며, 이를 통해 자연은 해석과 정신이 용해된 풍토로 고양되고 영토로서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결국 고구려의 사냥이 지니는 원시적 감정은 풍속과 풍토를 통해 정신화된다.

이때 원시적 감각에의 몰두는 자연을 지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과 일체화되어 소통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원시적 자연을 절대화하여 모든 가치의 근원으로 자연이 위치지워진다.

옥저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길도 끊어진 태산준령뿐이었다. 마침 단풍철이어서 산천은 눈이 따갑게 화려하였고 덤불마다 머루 다래는 향취가 진동하며 석벽 밑에 잠긴 샘물은 얼음처럼 머물러 있었다. 뺨뺨한 나뭇가지 사이로 이따금 지나가는 자갯빛 영롱한 구름은 마치 하늘을 나는 선녀들의 천의(天衣)자락을 보는 듯한데 새소리조차 사죽(絲竹)과 같이 맑아 말만 걸음만 멈추면 모두 채찍질하기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았다.(134-135쪽)

이러한 자연과의 일체감은 감성적 향토에 기초하여 역사 전통을 세우려는 몰주체적 주장주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태도는 낭만주의적 태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시적인 감정의 강조는 역사라는 정치 과정의 전체상을 일종의 자연과정으로 바꾸어버린다. 자연이나 향토를 역사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함으로써 공간과 풍토의 귀속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자연을 하나의 운명공동체적 실체로 치환해버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왕자 호동』에서 원시적인 감정은 자연을 바로 고구려의 역사와 정신으로 귀속시켜, 네이션이 갖는 공동체의 정치학을 자연과 풍토에 의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만든다.

이렇듯 네이션의 정치학은 자기와 타자를 구분 짓고 구별하는 원리로써 감성적 자연을 절대화시킨다. 『왕자 호동』은 이를 통해 중국 한(漢) 민족과 다른 한(韓) 민족을 구분하고, 한(韓) 민족과 그것의 자연과 영토를 운명공동체로 통일시켜 '동국강산'으로 표상한다.

낙랑은 고구려에 얼마나 요긴한 땅이라는 것, 낙랑을 그냥 두었다가는 예맥 옥저가 모두 한나라 땅이 될 뿐 아니라 필경에는 고구려도 전후 좌우가 그의 세력 속에 싸이게 되니 그 운명이 장차 어찌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 고구려마저 한의 주먹에 들고 만다면 신라 백제가 또한 풍전등화가 될 것이니 그제는 이 동국강산과 기천만 민중은 일월을 잃어버리는 날이 아닐 것이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에게 조세를 바치며 그의 율법에 굴복해야 하느냐(134쪽)

인용문은 호동의 명령을 받은 을파달이 고구려의 "군중의 마음을 한목"(134쪽)에 묶기 위해 선동하는 내용이다. 을파달은 한(韓)민족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을 띤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다른 존재자로서 한(韓)민족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자연과 역사의 운명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중국식으로 관료화되기 이전의 고구려에서 민족/민족문화의 시원

을 찾고 그것을 복원하려는 태도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중국과 맞선 고구려에서 민족의 원형과 시원을 발견하려는 태도는 중국과 다른 한(韓)민족의 자연과 영토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다른 풍토와 정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민족/민족문화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시적 감정 속에서 한(韓)민족의 정신의 독자성을 발견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독자성과 정신을 복원하려는 소설적 의도는 식민지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양시켜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는 저수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비록 고구려가 대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복원하지 않았지만, 고구려의 독자성과 정신의 강조는 일본 제국주의자에게는 문제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자 호동』이 일본제국주의 말기에 검열을 통과하여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고구려가 중국에 맞서 동북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인 사실의 강조는 만주 영토가 변동과 부침이 심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이는 중국과 만주의 틈새를 벌여놓아 중국 대륙이라는 단일성을 깨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漢)나라와 맞선 고구려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과 조선 그리고 만주까지 이어지는 인종적 성격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동조동근(同祖同根)론이라는 일본적 동일성의 이데올로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구려의 독자성과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한(韓)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만주국을 그리고 중국과 조선을 대립시켜 중국 문화권이라는 단일성을 붕괴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는 대륙의 끝이 아닌 대륙이라는 함의(connotation)를 갖게 된다. 이렇듯 조선이라는 지정학적 환경이 반도

가 아닌 대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대륙의 진출기지로 한반도를 바라 보던 일본 제국주의자의 시선의 작용인 셈이고 이것이 결국 출판지면을 찾지 못한 다른 작가의 작품과 달리 이태준의 『왕자 호동』이 식민지 말기에 조선어로 발표되고 출판될 수 있게 했던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3. 네이션 서사학의 주제 구성 방식

3-1. 가부장제와 네이션 의식

『왕자 호동』 후반부의 중심 서사는 고구려의 왕자인 호동과 고구려와 적대국인 낙랑공주의 사랑이다.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랑은 개인 대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각자 나라의 대표자들의 사랑으로, 전략적으로 화해할 것인가 아니면 적대적이 되어 전쟁의 힘으로 상대방을 동일화시킬 것인가 하는 난제 위에서 위태롭게 전개된다. 낙랑의 지배자 최리는 한나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태수가 아니라 임금 노릇을 하며 영토확장을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지만 날로 강성해 가는 고구려에 위협을 느낀다. 고구려의 위협을 무마하고 분리 독립이라는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리는 자신의 딸과 호동 왕자의 정략결혼을 생각하기도 한다. 반면 고구려에서는 나라의 안정적인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남진하여 낙랑을 정벌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운다. 특히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전략은 호동에 의해서 발안된다.

남쪽으로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몰래 순행하고 있던 호동은 옥저 땅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최리와 조우한다. 한눈에 호동을 알아본 최리는 호동을 낙랑의 수도 왕검성의 궁으로 초대하고 낙랑공주와 호동 왕자는 서로에게 이끌리는 감정 속에서도 네이션의 경계와 차이로 번민한다.

서로에 대해 이끌리는 감정의 와중에 호동은 “내가 낙랑공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다니!”(201쪽)라며 절규한다. 적대국의 공주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낙랑공주 역시 사랑과 네이션 사이에서 번민한다. 호동이 왕검성에서 “백성들의 집은 하나 집 같은 것을 못 보았고 백성들의 얼굴은 하나 활기 띤 것을 못 보았”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찌푸리지 않는 얼굴, 불평 없는 얼굴이 하나나 있나?”며 비평한 후 이에 비해 고구려는 “찌푸릴 일이 있으면 임금과 백성이 함께 찌푸리는 것이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임금과 백성이 같이 즐거운 것”(207쪽)이라고 말하자 낙랑공주는 국가적 모욕이라 여기고 호동을 헤치고자 하나 사랑 때문에 실패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낙랑공주는 호동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호동은 고구려로 돌아간다.

그러나 양국이 본격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자 낙랑 공주의 번민은 커져만 간다. 호동이 공주에게 몰래 소유별을 보내 “낙랑의 신기 자명고와 자명각을 찢어버리라. 그리하면 내 그대를 아내로 맞을 것이요 그리 못하면 나도 할 수 없노라”(236쪽)라며 사랑을 무기로 낙랑 공주에게 자신과의 사랑과 조국 낙랑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한다. “이 낙랑공주가 고구려의 왕자 호동을 사랑하는 것만은 다만 호동이란 그 사나이 그 사람 그 대상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뿐인”데, “오직 사랑만으로 죄다 이런 아름다울 뿐이던 공주의 사랑도 여기에 미치어서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복잡한 고민의 사랑이 되고”(239쪽)만다. 낙랑공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동과의 사랑은 순수한 낭만적 사랑인 것이지만,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조국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랑공주는 “이 몸은 낙랑의 공주이기보단 벌써 고구려 왕실의 며느리다”(240쪽)라며 호동과의 사

량을 선택하게 된다. '고구려 왕실의 며느리'로 스스로의 주체를 정립시킨 낙랑공주는 전형적인 부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수호자이며 희생자인 셈이다.

부중심적 콤플렉스는 프로메에 따르면 엄격한 초자아, 죄악감, 부정적 권위에 향해진 순종적인 사람, 약자에 대한 지배욕, 자기의 죄에 대한 죄로서 고난을 감수하는 태도, 행복을 향수하는 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특징 지워진 심적 태도를 말하며, 이것은 근대시민 사회를 작동시키는 에토스에 다름 아니다.¹⁹⁾ 이는 가족을 '부(父)-자(子)'라는 관계성을 축으로 해서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타율적인 주체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모중심적 콤플렉스는 무조건의 모성애에 대한 낙천적인 신뢰, 적은 죄악감, 초자아 강도의 낮음, 좀더 강한 행복과 향수의 능력으로 약자와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과 애정이라는 모성적인 자질을 특징으로 한다. 모중심적 콤플렉스는 여성에 의해 규정된 인간관계를 축으로 파악하여 반권위주의적 심성을 주체에게 생성하게 하는 이상사회의 심적 성격이 표현된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프로메는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메의 논의에서 모성적인 것이 자애에 충만한 이타적인 주체로 나타날 경우 시민적 오이디푸스적 주체와 그리 멀지 않은 것이 된다. 이태준의 『성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모성적 육체를 신성시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내면화하는 이데올로기

19) 파시즘을 지지하는 대중의 권위주의적 심성을 해명하는 작업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한다.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1933년, 호르크하이머 외 『권위와 가족에 관한 연구』가 1936년, 프로메의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1940년에 나오고, 아도르노 외 『권위주의적 퍼스넬리티』가 1950년에 나온다. 본고에서는 프로메와 호르크하이머의 논의를 통해 순응의 메카니즘을 가족제도 안에서 분석하겠다. 프로메와 호르크하이머의 가족에 대한 논의는 上夜成利, 「ホルクハイマーと <母性的なるもの> のコートピ°ア」, 小岸 昭 外, 『ファシズムの想像力』, 人文書院, 1997. 446-472쪽에서 많은 시사와 도움을 받았다.

로 모중심적 콤플렉스가 작동하고 이것이 민족적 모성으로 확대된다면²⁰⁾ 외적 권위에 순응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적-시민적 세계에서는 모친이나 자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수한 감정, 무구의 동경이나 경의로써 관능적 요소는 모자관계나 남매관계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조차 순수한 관능성에 기초한 향수는 결핍되고, 관능적 요소를 뺀 정신적 유대가 신성화된다. 낙랑 공주의 에로스적 사랑이 부중심적 콤플렉스로 바뀌어 '고구려 왕실의 며느리'가 되는 과정은 관능성의 배제이며 정신적 유대의 신성화와 연결된다. 소읍별이 호동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 소읍별의 호동 왕자를 향한 '바치는 마음'은 에로스를 억압하고 거세하여 철저하게 사랑을 정신화하는 과정이다.

남성-시민 사회에서 억압된 에로스적 요소는 강고한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도 반권위주의적 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에로스적 욕망은 상호주관적 유희(宥和)의 가능성의 조건인 셈이다.²¹⁾ 그런데 낙랑 공주의 에로스적 사랑은 혈연의 부(父)와의 관계에서는 반권위주의적 계기로는 작용되지만, 호동과의 관계에서는 부중심적 제도에 의해 해체된다. 낙랑공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중심적 제도 속에서 자신의 주체를 표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비록 낙랑공주는 낙랑이라는 내셔널리즘을 초월한 사랑을 한 것으로 읽혀지지만, 자신의 내셔널리즘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호동이 속해 있는 내셔널리즘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결코 내셔널

20) 심진경의 「이태준의 『성모』연구」(『상허학보』 제8집, 2002. 3.)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21)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형제자매관계가 상호의 자유로운 개체성을 서로 순수하게 승인하는 관계이므로, 이 관계는 자연적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내부에 상호승인을 내재한 유희(宥和)의 계기가 숨어 있다고 보았다. 게오르크 W 프리드리히 헤겔,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2, 한길사, 2005. 298쪽.

리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닌 것이다. 사랑=내셔널리즘=죽음= 숭고의 원환 고리는 내셔널리즘을 최후의 정점에 놓는다는 점에서 최고의 가치로서 내셔널리즘을 절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낙랑공주의 사랑은 자신의 내셔널리즘을 부정했기 때문에 더욱 숭고한 사랑이 되고, 호동은 낙랑공주의 사랑과 맞바꾼 그 숭고한 죽음을 확인한다. 호동은 “오랫동안 한인에게 눌러 지내는 몇 백만 동족을 구하려는 정의의 불길”(252쪽)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은 죄로 자신의 아버지이자 조국의 통치자인 최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 낙랑공주의 시신을 부여 았고 호동은 “그대는 한인도 아니요, 최리의 딸도 아니요, 낙랑 공주도 아니었구나. 다만 이 호동 한 사람의 사랑이었구나”(253쪽)며 탄식한다. 그러나 낙랑 공주의 죽음 앞에서 ‘이 호동 한 사람의 사랑’이라고 힘주어 말함으로써 낙랑이라는 내셔널리즘을 모두 버린 공주의 사랑을 숭고하게 예찬한다. 따라서 낙랑공주의 사랑은 개별 주체자의 사랑으로가 아닌 대문자 주체인 고구려라는 내셔널리즘 안에 복종함으로써 더욱 숭고해진 셈이다. 낙랑공주가 자신의 혈육인 아버지와 네이션을 배신하고 호동과의 사랑을 선택하지만, 이는 네이션에 대한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고구려의 왕실의 며느리’가 되는 부중심적 콤플렉스에 의해 부-자의 남성 중심으로 스스로의 위치와 주체를 다시 불러 세운 것에 불과하다. 낙랑공주의 낭만적 사랑은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로 수렴되면서, 친아버지를 부정하고 남편으로 인정한 호동의 가문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게 한다. 더욱이 사적인 호동 개인이 아니라 왕자로 호명되는 호동에 대한 사랑은 곧 ‘고구려’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실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낙랑 공주의 사랑과 죽음은 네이션에 ‘바치는 마음’과 결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

가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원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함을 시사한다.²²⁾

그러므로 낙랑을 정벌하고 낙랑공주의 시신을 호송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는 행렬은 개선의 행렬이자 장송의 행렬이 되는데, 철저하게 내셔널리즘 안에 포획된 낭만적 사랑의 모습은 장엄하게 그려진다.

선두에는 보병단이 서되, 왕검성을 제일 먼저 뛰어들었던 일등공을 세운 편대가 서고, 다음에는 호동 장군의 호위대인 마병단이 서고 그 뒤부터 꽃수레와 향수레가 쌍쌍이 서고 흰말 여덟 필로 끄는 공주의 영차가 나아갔다. 영차 뒤에는 공주 무덤에 순장이 될 공주의 시녀들과 보물 수레가 서고 그 뒤에 왕자 호동이 말 위에 앉아 묵묵히 따랐다. 왕자 뒤에는 낙랑 왕을 가둔 수레, 다음에는 낙랑 신하들을 가둔 수레들이었고 그리고는 백리나 늘어선 고구려군의 행렬이었다.(284쪽)

그런데 고구려로 귀환하는 도중에 호동은 친어머니를 죽인 강차를 만

22)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사회질서의 유지에 제일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장치에 안에 있는 물리적 폭력의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에 대한 주체의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계기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복종을 주체에게 지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 학교, 교회 등등의 제반 문화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 제도를 매개로 해서 개개의 주체는 도덕의식, 양심, 의무관념 등을 내면화하고, 그것에 의해 비로소 사회질서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으로, 가족은 제일 중요한 중개자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이 요구하는 인간의 성격을 기초를 다지는데 이렇게 가족이 인간의 성격에 부여하는 대부분은 권위주의에 대한 자발적 종속이라고 한다. 자식은 아버지의 강력함을 생활 습관적이고 규범적인 관계의 정당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오성으로 그 실체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어, 시민적 권위관계를 위한 최초의 교육을 경험한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도 개별자의 상호 인정과 성애에 기반한 모중심적 콤플렉스에 의해 반권주의적 계기가 함양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호르크하이머에게 진정으로 위기적인 사태는 근대 시민적 가족 안에 가부장제적 구조가 지금도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사태가 아니라 비록 가부장제 구조로 규정될지라도 가족이라는 장 그 자체가 해체되고 마는 쪽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호르크하이머, 『權威と 家族』, (森田 編譯, 『批判的社會理論』, 일본: 恒星社厚生閣, 1994.

나 왕비에 의해 차비인 친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듣게 되고 분노에 휩싸인다. 호동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고구려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반을 꾀하려고 한다. 즉, 새로운 부(父)로 스스로를 정립하려다가, 호동이 낙랑공주의 죽음,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고 난 후, “하늘이란 이제 알고 보니 무심한 것이로구나”고 생각하며 “참말 인생이란 허무하고나”(274쪽)며 자신의 운명에 탄식한다. 그리고는 “내 속 한번 시원하자고 어찌 위로 역대성조(歷代聖祖)의 천업(天業)을 훼손하며 아래로 몇 천만 백성의 신념을 유린하라!”며 “칼자루를 쓰다듬으며 잘못 먹었던 마음을 스스로 달래”(276쪽)며, 대주체인 ‘부(父)’로 표상되는 네이션에 순응하기로 다짐한다. 여기서 ‘인생의 허무’라는 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설명되지 않고 정당화되지 않는 논리적, 감성적 부족을 허무로 채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호동의 타나토스적 욕망은 부중심적 콤플렉스에 의해 억압된 것의 귀환을 ‘허무’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동은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로 귀환하자마자 왕비의 참언에 의해 옥에 갇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허무를 깨달은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하늘 즉 운명으로 깨닫고 죽음을 결심한다. 호동이 절대화된 대주체 부(父)/네이션에 순응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신의 현존을 부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나랏일이라기보다 집안일이다. 왕비의 가정적 죄행을 나라 조정에서 폭로시켜 옳을 것인가? 아들이 옳든, 어미가 옳든, 얼마나 남부끄러운 일인가. 내 아버님은 어디까지 임금으로서 존엄을 지니셔야 할 자리다. 나만 어서 누명을 벗으려 그 어른의 가정적 추문을 여기서 기탄없이 폭로시킨다면, 그 어른의 위신이 어찌될 것인가? 비록 한 때나마 내 아버님, 내 임금께서 신하들에게 얼굴을 붉히시게 해드린

다면, 그게 그 어른의 자식되어서, 그게 그 어른의 신하되어서 옳은
도리일까?(287쪽)

이처럼 호동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에 편입시켜 철저하게 위계화하
며 공적 영역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집안일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비롯된 신원을 풀려다가 도리어 아버지인 공적영역의 우두머리인 왕에
게 누가 된다고 사유하는 것이다. '자식'으로서의 '사원'을 풀려다가 '신
하'된 자로서의 국가의 존망을 해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스
스로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이는 철저히 부중심의 콤플렉스에 순응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이 자기를 하나의 확고한 주체로서 정립하고 자기동일적이고 목
적지향적인 남성적 자아, 즉 자율적이고 시민적인 오이디푸스적 주체가
되면 억압된 기제와 성애에 의해 자아를 상실하고자 하는 유혹, 즉 부정
형으로 유동적인 환경세계 안에 자기를 용해시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
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오이디푸스적 주체로서의
자기는 억압에 의해 자아의 상실, 자아의 파괴, 죽음 충동을 생성한다.
인간이 자기보존을 향한 맹목적 결의를 갖고, 자기동일성의 주체로 자기
를 만들어 난 후에도 이 자아 파괴의 유혹은 주체의 주위를 무단히 돌고
있다. 호동의 타나토스적 충동은 표면으로는 부(父)와 네이션을 향한 것
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부중심적 콤플렉스에 의해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
는 이중성을 갖는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자아의 상실을 유발하는
여신 사이렌의 유혹은 그것이 시민적 오이디푸스적 주체에 억압된 채
깊이 잠복해 있는 주체를 향해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타나토스적 욕망
은 시민적 오이디푸스적 주체를 근거에서 해체하는 힘을 갖고 있어 유
토피아를 향한 잠재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이는 부중심적 콤플렉스가

아니라 이렇게 모성적인 것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왕자 호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성적인 것의 계기는 남성적 시민적 세계의 원리 안에 교묘히 조직될 수밖에 없다. 호르크하이머는 모성적인 것이 타자의 발전과 행복을 바라는 이타적 주체와 같이 표상할 때에도 그것이 언제나 자기의 에고이스틱한 욕구를 추구하는 주체, 즉 주체의 성애를 전제한다. 이것은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개별적 자기으로써 경험하는 상호승인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모성적인 것 안에 저항이라는 반권위주의적 계기를 불가결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모중심적 원리는 시민적 주체를 문명이전으로 퇴행시키는 계기로서 위치지워지기도 한다. 『왕자 호동』에서 모중심적 콤플렉스는 타나토스적 욕망과 허무라는 신비주의로 나타난다. 이는 외적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응이면서 순응에 의해 풀릴 길 없는 억압과 부조리가 파열하려는 것을 감싸 무(無)화 하는 초월론으로 이어지고 만다. 이렇듯 모성적이고 성애적인 자연의 반란조차 스스로의 자연 지배의 도구로서 조직되고 마는 것이 남성적-시민적 세계의 원리 즉 계몽적 도구적 이성의 교지(狡智)인 셈이다. 가족적 유대를 부정한 채 사회 곳곳까지 합리적으로 통제되는 이성의 공화국을 기획하는 것은 공화제라는 보편적 것의 절대적 지배를 강화하는 국가사회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호동과 낙랑공주의 사랑은 외적 권위인 네이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형태로 모두 귀결된다. 이 철저한 순종을 가능케 한 원리는 가부장제였고 이들의 사랑이라는 감정태도는 충(忠)에 복속되어 내셔널리즘으로 수렴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랑은 성애를 동반한 구체적인 실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가까운 추상적이고 초월론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행동은 '개별적인 자기에 의한 상호승인'의 구체성을 담보 하지 못해 외적 권위에 대해 저항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한 상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3-2. 낭만적 사랑과 사적 영역의 부정

『왕자 호동』에서 왕비는 호동의 어머니인 차비를 몰래 죽이고 차비가 바람이 나서 도망한 것처럼 꾸민다. 그런데 소설에서 왕비의 차비에 대한 질투와 모함은 왕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으로 묘사된다. 왕비는 왕과 '한시도 에면테면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이마를 맞대이고 살아보았으면'하는 욕망을 품기도 하고, '호젓하고 가정적인 환경'과 '아늑하고 오붓한 가정'을 동경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의 상을 동경하는 왕비는 고구려 시대의 여인상이라기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의 왕족의 결혼은 부족간의 결합을 결속하기 위한 부족혼이었고 삼국사기에 따르더라도 호동의 어머니는 부여족 갈래인 갈사왕의 손녀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비의 소망은 1940년대 대중적인 기호인 스위트 홈에 의한 낭만적 사랑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은 왕비 스스로 '나는 이 가정이 그리운 거다'며 자신의 개인적 욕망의 실체를 표상하도록 유도한다. 왕비가 "강 건너 산기슭에서 곰기름 등잔 밑에서나마 아늑하고 오붓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단 두 내외야말로 인간에 참된 복락을 누리는 자가 아닐까?"(37쪽)라고 회의하는 장면이나 '이렇게 눈이 강산처럼 쌓여 길이 끊어지는 겨울 한철만이라도' 신왕을 살뜰히 모셔보기를 소망하는 장면 역시 부부의 개인적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가정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비의 이러한 사적인 정과 가정적 환경을 욕망하는 태도는 도리어 독자에게 사적 영역을 부정하는 독법으로 작용한다. 즉 긍정적인 주인공 호동과 대비되어 호동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왕비의 소망은 부정되고 또한 소설에 나타난 부중심적 콤플렉스가 부부 관계에서조차 순수한 관능성이나 욕망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비의 관능적인 사랑과 대비되어 소읍별의 호동에 대한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왕자 호동』이 네이션 의식을 철저히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읍별은 여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남장을 한 채 호동과 함께 지낸다. 소읍별은 호동이 자신이 여자임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장을 하였기에 호동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한 군중(軍中) 생활을 낙원으로 여기는 모순된 위치에 있는 여성이다. 소읍별의 호동을 향한 마음은 신하가 군주를 향하는 마음과 결합되어 철저히 정신화된 것이므로 삼각관계라는 대중적 서사 구조와 달리 소읍별의 사랑은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장애물로 작용되지 않는다. 호동이라는 존재는 사적인 개인이면서도 네이션을 표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읍별은 낭만적 사랑의 감정을 품으면서도 그 속에는 네이션에 대한 충절의 감정과 태도가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호동님의 마음을 그다지 아프게 찢어드린 것은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읍별은 몸을 바수고 싶게 송구하였다”(90쪽)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동은 소읍별에게 마음속으로는 직위나 직함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군주를 향한 신하의 태도로 호명된다.

그러므로 왕비가 왕을 사랑하는 일이 ‘오붓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감정이라는 사적영역으로 고립되어 있는 반면 소읍별의 사랑은 “바치는 마음”으로 표상되어 공적영역으로 편입된다. 소읍별의 “나라를 사랑하던 마음은 호동 왕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라에 바쳤던 붉은 마음은 호동 왕자에게 부딪쳐 불꽃이 일었다.” “소읍별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에 뛰어든 것도 나라를 위한 충성보다는 남문누살 호동 왕자를 위한 사랑의 힘이었다.”(213쪽)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읍별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을 억제하고 이를 공적 영역과 네이션에 대한 충절로 승화된다. 즉 개인의 낭만적 사랑과 공적인 충절의 사랑이 혼효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를 위해 죽겠습니다', '허리에 칼을 찬 이상, 어떤 몸이든 그런 영광의 죽음을 어찌 두려워하오리까!' 는 소읍별의 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읍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적영역을 철저하게 억제한 채 네이션으로 승화하여 표출된다.

소읍별의 사랑에서 알 수 있듯이 『왕자 호동』은 남성 중심적인 전쟁의 서사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랑이라는 선택적 상황을 주요한 계기로 설정하여 전쟁을 정념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극단적인 방식의 정치적 실현체인 전쟁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잔혹한 서사를 여성의 사랑이라는 정념으로 치환하여 외부적 대주체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소읍별은 한나라 정벌군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호동과의 사랑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지만, 호동 왕자는 소읍별에게 "너는 네 여자의 지혜와 몸을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나에게 빌려줄 수 없겠느냐?"(226쪽)며 재차 국민 영웅으로의 재귀 명령을 요청함으로써 끊임없이 사적영역을 부정하도록 강요한다. 낙랑공주의 에로스적 사랑이 네이션 의식으로 승화되는 것 역시 한(韓)민족의 운명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적영역을 부정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호동은 네이션을 내세워 자신을 사랑하는 소읍별이나 낙랑공주를 호명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위해 사적영역을 부정하게 유도하는 한편 스스로도 사적영역을 부정한다. 이들 여성의 사랑은 지극히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공적 영역으로 수렴되고 네이션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전체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호동은 남성이자 국가로 표상되는 왕자로 호명됨으로써 두 여성의 사랑은 남성 내지 국가에 '바치는 마음'으로 표명된다. 즉 남성에게 헌신하는 여성의 사랑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에 '바치는 마음'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특히 소읍별이 남성인 호동을 사랑하기에 남장을 하고 네

이전에 '바치는 마음'으로 호동에게 접근하는 것은 남성적 특성을 갖추었을 때 사랑의 실현이 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민 전체를 남성으로 호명하고 있는 상황이 네이션의 서사학의 기조인 것이다. 즉 네이션 서사학은 네이션 전체를 남성으로 젠더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요컨대 이 소설에서 소읍별과 낙랑공주의 사랑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모두 네이션에 귀속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호동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호명되는 국가에 '바치는 마음'으로 드러남으로써 숭고함을 띠게 된다. 결국 이들의 숭고한 사랑은 대무신왕의 부인인 왕비의 사랑과 대비된다. 왕비의 사랑은 이성애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사랑으로 '음모와 저열함'의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특히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정되어야 할 인간의 품성으로 간주하게 된다. 근대적 가정을 소망하던 왕비의 소망은 부정되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시민적 소가정은 그것 자체가 권위주의적 주체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 장이기도, 반권위주의적인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왕자 호동』은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랑은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모두 부정되고 성애와 모성적 계기를 내포한 '가정'의 모습은 대주체인 '부(父)'를 강조함으로써 역시 부정된다. 오직 국가에 종속되는 '부(父)'중심의 공적영역인 가족제도만이 승인될 뿐이다.²³⁾

23) 그 동안 이태준 소설이 평가 받았던 서구적 근대에 대한 거리두기와 근대적 이성 중심에 대한 부정 역시 재고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태준은 한편으로 서구적 근대의 이성과 근대의 원리를 비판하고 초극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중심적 콤플렉스를 전제로 가정과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근대 사회가 지니는 남성적·시민적 오이디푸스적 주체를 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대주체에 대한 맹목적 순응이라는 계기로 작용하게 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왕자 호동』에 나타난 네이션 서사학과 대중미학을 주체 구성 방식과 타자 표상 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태준의 『왕자 호동』에는 낭만적 미의식과 가부장제 원리가 충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제국과 민족 모두에 해당하는 작동 원리인데, 논리적으로 동일한 원리를 갖고 동일한 원리인 제국주의에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리라면 제국주의의 지배 체제 내에서 균열과 파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쉽사리 제국주의 이념에 포획되고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자 호동』에서 심정적 민족주의를 읽어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반대한다고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 낭만과의 담론과 미학적 원리가 태평양 전쟁기에 전쟁을 지지하는 담론으로 작용하여 전쟁을 '문화'화 시키고 일상화시킨 일을 상기해보면 이태준의 소설이 보여주는 이 미학적 원리와 담론 그리고 네이션의 구성원리는 제국주의가 노정한 문제를 그대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구성방식, 즉 전반부에서는 타자를 표상하는 반면 후반부에서 낭만성을 기조로 주체를 표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네이션 서사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제국주의의 시선과 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의 시선이 교묘하게 맞붙어 있는 형국이다. 네이션 의식과 낭만적 아이러니와 낭만적 사랑이라는 대중미학적 원리를 결합시킨 네이션 서사학을 통해 서로 이질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식민지 내부의 시선을 교묘하게 접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원시적 시원을 낭만적으로 동경하고, 죽음을 통해서 낭만적 사랑을 성취한다는 아이러니적 방식을 이용해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한(韓)민족 의식과 일체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순응하는 상상적 일체감을 갖게 한다. 즉, 제국주의의 시선에서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차선의 악을 선택한다는 원리에 의해 저항하면서 순응하는 식민지적 삶의 이중적 양태를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태준의 『왕자 호동』에서는 민족/제국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중층의 굴절된 내셔널리즘을 통해 중층의 굴절된 상상적 일체감을 제공하는 타협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방식으로 네이션 서사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저항하면서 순응하는 굴절된 글쓰기의 표본 작품인 셈이다.

전시총동원의 시기, 일본어가 강제 되던 시기에 『왕자 호동』이 조선어로 씌어졌다는 것은 일본어를 자유로이 해독할 수 없었던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네이션이라는 운명공동체적 감각을 전이시켜 상상적 일체감을 유발하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문학』 1942년 신년호좌담회에서 제국주의 기관 관계자들이 전시총동원체제에 문학인들이 제일 소극적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총경무국 보안과장 후루가와(古川)는 취체(取締)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만 문학인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공공연히 비난²⁴⁾할 정도로 문학인에 대한 억압과 압박이 거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어렵게 작품 활동을 했다면 작품 속에 저항하며 순응하기의 원리가 작동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일 것이다. 또한 네이션의 함의 내용이 작가 의식과 제국주의자의 시선 사이에 괴리를 보이는 것 역시 필연일 것이다. 그러나 미학적 원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외적 권위에 순응하게 만드는 억압적 주체를 재생산하는데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지금·여기'의 우리의 몫인 것이다.

24) 辛島 驍 古川 兼秀 외, 「문예동원을 말한다」, 『國民文學』(일본어), 1942 신년호, 인문사, 110쪽.

참고문헌

- 방민호, 「일제말기 이태준 단편소설의 '사소설' 양상」, 『상허학보』 제14집, 2005.2.
- 심진경, 「이태준의 『성모』 연구」, 『상허학보』 제8집, 2002.2.
- 윤대석, 「특집/친일문학: 1940년을 전후한 조선의 언어 상황과 문학자」, 『한국 근대문학연구』 제7호, 2003.4.
- 나병철, 「서사와 대중성」, 『대중서사연구』 제9호, 2003.6.
-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 호동』, 깊은샘, 1999.
- 진영복, 「민족적 주제구성과 글쓰기양상」, 『어문론총』 제42호, 2005.6.
- 하정일, 「계몽의 내면화와 자기 확인의 서사 - 이태준론」, 『상허학보』 제3집, 1996.9.
- 김현주,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2005.
-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출판부, 2000.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사, 2005.
- 게오르크 W. 프리드리히 헤겔,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2, 한길사, 2005.
-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 일본: 未來社, 1995(초판: 1960)
- 森田 編譯, 『批判的社會理論』, 일본: 恒星社厚生閣, 1994.
- 小岸 昭 外, 『ファシズムの想像力』, 일본: 人文書院, 1997.
- Kevin Michael Doak, 小林宜子 譯, 『日本浪漫派 とナショナリズム』, 일본: 柏書房, 1999.



The Narrative of Nation and Romantic Character

- concentrating on *the prince Ho-Dong*, written by Lee Tae-jun

Jin, Young-Bok

This study observes the system composition of the Subject and Others that appeared in the historical novel *the prince Ho-Dong*, written by Lee Tae-jun, through examining narrative and popular aesthetic of Nation. As a result, I have noticed that this novel expresses both the delicately balanced gaze of imperialism and the resistance to it through popular aesthetic principals that include romantic irony and a romantic love.

This novel leads the reader to spontaneously adapt to nationalism, then to realize both the sense of unity towards consciousness of the Korean race and the sense of imaginative unification through resistance /adaptation of the Japanese militarism. This is accomplished by yearning the primitive source and expanding romantic love to the love of the nation, ironically denying the process at the same time.

Namely, this novel partially accepts the aspects of imperialism which could be sympathized, concurrently following the contrary principle of resistance /adaptation portrayed typically in colonial life by making the second best choice.

In short this novel is offering a sense of imaginative unification through the concept of Nation carrying both the meaning of nation/empire. At the same time, the novel is seeking for a compromised equilibrium by nationalism.

Key Words

Nation, nationalism, Popular aesthetics , Subject, Other, romantic irony, romantic love, a sense of imaginative unification, resistance, adaptation.

* 위 논문은 2006년 4월 28일 투고되어,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